

CEO 동선

전기철도 개통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0일 본사에서 공단과 공사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가 주관한 전기철도 개통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전기철도 발전사와 당면 과제를 소개했다.

원·하도급 협력사 상생토론회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철도건설에 참여하는 원·하도급사 대표 140여 명과 함께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를 가졌다.

수도권본부 임직원 CEO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0일 수도권본부 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철도변화'라는 주제로 CEO특강을 가졌다.

초등 4년생에게 송달된 재결서 효력 인정

- 보상금 지급 소송서 승소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6월 20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대전 동구 원동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의 손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므로, 적법하게 재결서를 송달받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연령이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재결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하절기 에너지절약 비상대책 가동

- 전년 대비 전력사용 15% 감축목표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하절기 에너지절약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안전실은 하절기 사무실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14시에서 17시까지 서울, 강원, 순천, 부산 및 대전에 위치한 지역본부의 냉방기를 30분씩 순차적으로 운휴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토록 했다.

특히, 전력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전력예비력 300만kW 미만의 주의단계에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0만kW 미만의 경계단계에는 실내조명과 승강기 사용을 중지한다.

관계자는 "가법고 시원한 차림으로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점심시간에는 조영기구 및 냉방기 전원을 강제 차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에너지 적정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철도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완료

- 261곳 현장에서 279건 취약요인 사전제거 완료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여름철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261곳의 철도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요인 279건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안전실은 5개 지역본부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대절토사면, 하천횡단, 도로통과, 열차운행선 인접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64건, 터널 입출구 및 절개지의 비탈사면 정비 57건, 안전시설 정비 34건, 가시설 정비 27건 등 총 279건을 시정조치 했다.

특히,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터널공사의 저토피 구간과 지질이상대 및 가시설 구간은 우수침투로 인한 자반가동여부를 정밀 측정하여 관리기준에 의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해 터널 및 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관계자는 "여름철에 1~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돼 철도건설 현장의 우기 취약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위해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안정화 시험 위한 고속철도선로 사용 협약

고속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한국형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 430km/h eXperiment)의 상용화를 위해 6월 24일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과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안정화 시험을 위한 고속선로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험에 착수한다.

본 협약에 의하면 연구원은 고속선로 사용 및 선로배분 승인에 관한 사항, 철도공사는 운전요원 및 정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철도연은 시험수행과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차세대고속열차의 주행 안정화 시험은 지난 3월 28일 421.4km/h 최고속도시험 이후 차량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속도(300km/h)로 10만km 이상을 주행 시험하는 것이며, 경부고속철도 광명역~부산역 구간 및 건설 중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역 구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임 연구원장은 "국가발전과 철도차량의 해외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건설, 관리하고 있는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구간에서 충분히 시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시험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국내 고속철도기술을 한 단계 올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상용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안정화 시험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좌부터) 임영록 연구원장, 철도연 김영학 수석, 철도공사 염승호 연구원장

기술사 취득 최종시험에 4명 합격

- 전 직원 1300여 명 중 108명 기술사 취득 완료 -

2013년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양성직 일반철도차장 등 4명이 최종 합격하면서 전체 임직원 중 철도건설관련 22개 분야에서 총 108명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6개 분야의 '기술사취득과정'을 개설하여 2013년 상반기에 철도기술사 22명, 정보통신기술사 13명, 건축사 16명 등 51명의 교육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전기철도 기술사, 신호제어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3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해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도울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임직원의 약 50% 수준인 671명(석사 490명, 박사 30명, 기술사 151명)을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매년 석사 19명, 박사 2명, 기술사 5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임 연구원장은 "석·박사 및 기술사 등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공단의 철도기술역량을 향상시키고 철도강국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